**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민족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음**

**6/9 월요일**

***아침의 누림***

**막 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막 4:26**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서

**계 14:2, 4**
**2**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들은 그 음성은 수금 연주자들의 수금 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4**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 온 이들입니다.

**눅 17:21**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라고도 말하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 3:6-7, 9**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7**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

 마가복음4장에서 우리는 복음의 씨, 즉 복음이 하나의 씨라는 것을 본다. 4장3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동안에 그분은 씨를 뿌리고 계셨다. 노예-구주는 이렇게 씨를 뿌리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막 1:14-15). 그것은 4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노예-구주께서 하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이었으며, 그분의 복음 봉사가 그분께서 섬기시는 사람들 안으로 신성한 생명을 뿌리는 것이었음을 가리킨다. 이 생명의 성장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에 달려 있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들 각각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막 4:1-20).

 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안으로 씨를 뿌리셨다.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13장에서 사람의 마음은 토양에 비유된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자 토양이며, 주 예수님은 그 안으로 그분 자신을 생명의 씨로 뿌리셨다. 이 생명의 씨가 바로 복음의 씨이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주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분이시자 또한 뿌려진 씨이시다. 씨를 뿌리는 분으로서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 자신을 생명의 씨로 뿌리신다. (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4, 138쪽)

1.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씨를 뿌리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그 분 자신을 뿌리신 것이다. 그런 다음 이 왕국의 씨는 제자들 안에서 삼 년 반 동안 발전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왕국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오셨을 때부터 오순절 날까지의 기간은 채 사 년이 안 되었다. 그 시간은 씨가 ‘땅으로’ 뿌려져 자라기 위한 기간이었다. 그 씨는 오순절 날이 올 때까지 계속 자라고 발전했으며, 그날에 하나님의 왕국은 명백히 베드로 및 백 이 십 명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의 왕국과는 매우 다르다. 사람의 왕국은 조직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왕국은 절대적으로 생명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씨로서 믿는 이들 안으로 뿌려지신 하나님-사람,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씨는 믿는 이들 안으로 이미 뿌려졌고, 이후에 그들 안에서 자라서 결국은 왕국으로 발전할 것이다. … 이 왕국은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발전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 나는 생물학에서 한 용어를 빌리고자 한다. 그 용어는 ‘유전자’이다. 우리 존재 안으로 뿌려지신 인성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께서 바로 왕국의 유전자이시다. 우리는 인간의 유전자가 없다면 인간의 생명을 갖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출생과 존재와 생존은 모두 유전자로부터 왔다. 이제 우리는 인성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뿌려지셔서 왕국의 유전자가 되셨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주님을 찬양한다! 이 유전자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 결국 왕국은 이 유전자로부터 산출될 것이다.

 먼저 왕국은 복음의 산물이며, 그 다음으로 복음의 목표이다. 이 산물과 목표 사이에 교회가 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가? 교회는 왕국의 유전자로부터 산출된 산물의 연장이다.

 우리 안으로 뿌려지신 분은 왕국의 유전자, 즉 인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이시다. 이 놀라우신 분께서 우리의 하나님, 주님, 구원자, 구속자, 주인, 생명이시다. 날마다 왕국의 씨는 우리 안에서 자라며 발전하고 있다. … 많은 것을 잊어버릴 지라도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인성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은 생명의 씨로서 우리 안으로 이미 뿌려지셨고, 이제 자라시고 발전하시며 왕국을 산출하신다. 따라서 왕국은 오늘날 복음의 산물이며 장차 복음의 목표일 것이다. 이러한 산물과 목표 사이에 교회생활이 있다. 교회생활은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유전자로부터 산출된 산물의 연장이다(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4, 139, 143-144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4*

**6/10 화요일**

***아침의 누림***

**막 4:26, 28-29**
**26**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서
**28**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잎사귀이고, 다음에는 이삭이며, 그다음에는 이삭에 꽉 찬 낟알입니다.
**29**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즉시 낫을 대는데, 왜냐하면 수확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막 4:3, 9**
**3** “들으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9**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행 6:7**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

**행 19:20**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힘 있게 자라고 점점 세력을 얻었다.

**벧후 1:3-4, 11**
**3**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1**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사람들 안으로 뿌려지시고 그들 안에서 왕국으로 발전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사복음서는 육체 되신 삼일 하나님을 계시한다. 결국 이 ‘하나님-사람’은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뿌리기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왕국의 씨 곧 왕국의 유전자를 받았다. 이 씨, 이 유전자는 바로 육체 되신 하나님 곧 인성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이다. 복음서들에서 우리는 이 왕국의 씨가 뿌려지는 것을 본다.

 사도행전에서는 수백 명, 심지어 수천 명의 씨 뿌리는 이들이 일으켜졌다. 씨뿌리는 이 모든 이들은 씨 곧 유전자를 받아들인 이들이었다. 그들은 이 씨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씨를 다른 이들 안으로 뿌릴 수 있는 이들이 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 씨를 뿌리고 이 씨를 번식시킨다.(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 145-147쪽)

1. ***오늘의 읽을 말씀***

 서신서들에서 우리는 왕국의 씨 곧 왕국의 유전자가 자라는 것을 본다. 우리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러한 성장을 본다. …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 씨의 성장과 발전이 있다(9하, 6절).

 왕국의 유전자의 더 전진된 발전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볼 수 있다. …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5절부터 7절까지에서 우리는 이 씨가 발전하여 성숙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를 본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발전이 있다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한다(벧후 1:11).

 이 씨의 수확은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따르면, 먼저는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가 있다(4, 15절).

 요한계시록 14장에 언급된 첫 열매인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들이 될 사람들에 포함될 것이다. 천 년간 지속되는 천년왕국은 왕국의 유전자가 완전히 발전한 것이다. 왕국의 유전자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들이 될 것이다. 그때에 우리의 아버지는 그분의 원수에게 이렇게 자랑하실지도 모른다. “작은 사탄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무저갱에 있구나. 사탄아, 나는 너에게 나의 왕국을 보라고 요구한다. 특히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공동 왕들인 이 모든 사람들을 보아라. 나의 아들을 믿고 왕국의 유전자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와 함께 공동 왕들이 되었다. 나의 아들은 왕이고, 모든 이기는 믿는 이들은 그의 공동 왕들이다. 사탄아, 이 왕과 공동 왕들을 보아라. 이 얼마나 놀라운 왕국인가!”

 천년왕국 끝에 사탄은 풀려날 것이고 다시 한번 반역하는 것이 허락될 것이다 (비교 계 20:7-8). … 비록 사탄은 민족들 가운데서 반역을 선동하겠지만, 공동 왕들에게는 손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왕국의 유전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왕국의 유전자는 장차 공동 왕들이 될 이 사람들의 타락한 인성 안에 있는 모든 반역적인 요소를 삼킬 것이다. 그러므로 악한 자 사탄이 ‘왕국-유전자를 가진 백성’이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도록 선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왕국을 소유하실 것이며, 이 왕국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왕들의 구성체일 것이며, 이 왕들은 완전히 회복된 민족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원한 왕국을 소유하시게 될 것이다. 이 영원한 왕국은 복음서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 곧 인성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께서 뿌리신 유전자가 완전히 발전한 것일 것이다.

 복음서들 안에서 뿌려진 왕국의 유전자는 얼마나 놀라운지! 결국 이 유전자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한 천년왕국으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으로 발전할 것이다. 왕국의 유전자와 그것의 발전에 대한 이러한 그림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 147-149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

**6/****11 수요일**

***아침의 누림***

**마 9:12-13, 36, 38**
**12**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13** 여러분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36**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내버려졌기 때문이다.
**38** 수확의 주님께 간청하여 ‘수확할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사 53:4, 6**
**4** 정녕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였건만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 맞으며 고통을 받는 것으로 여겼다.
**6**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자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사 40:11** 목자처럼 그분은 자기 양 떼를 먹이시고 어린양들을 자기 팔 안에 모으시며 자기 품에 안으시리라. 그분은 새끼들 젖 먹이는 어미들을 인도하시리라.

**벧전 2:24**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어 상처 입으심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는 ‘시달리며’는 헬라어로 양이 잔인한 목자에게 가죽이 벗겨져 고통 당하는 것을 가리킨다. ‘내버려지는’ 것은 사악한 목자가 양을 버림으로써 그 양이 곤란한 상태에 빠져 집도 없이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아무도 움도 받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주 예수님의 말씀은 가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악한 목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 아래 시달림 받고 괴로워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이것은 하늘의 왕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양으로 여기시고, 그분 자신을 그들의 목자로 여기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에게는 돌보아 줄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과 온갖 가련한 사람들 같았다. 이제 하늘에 속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왕으로서 사역하실 때에 그분은 의사로서만이 아니라 또한 목자로서 그들에게 사역하셨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6절과 40장 11절에 예언된 것이다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권, 메시지 29, 78쪽)

1.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그분께 주어진 기회로 삼아, 의사이신 그분 자신에 대한 매우 달콤한 계시를 주셨다(마 9:11-12). …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병든 사람 곧 환자이며, 자신은 그들에게 재판관이 아니라 의사 곧 치료하는 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은 왕국을 위해 그분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부르실 때, 재판관이 아니라 의사로서 사역하셨다. 재판관이 심판하는 것은 의에 따른 것이지만,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 긍휼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그 분께서 하늘에 속한 왕국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마 8:2-4)과 중풍병 환자들(8:5-13, 9:2-8)과 열병 환자(8:14-15)와 귀신 들린 사람들(8:16, 28-32)과 각종 병든 사람들(8:16)과 멸시받는 세리들과 죄인들(9:9-11)이었다. 그분께서 이 가련한 사람들에게 재판관으로서 찾아오셨다면,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고 거절당했을 것이며, 아무도 하늘에 속한 왕국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거나 선택을 받거나 부름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의사로서 사역하러 오셨는데, 그 목적은 그들을 하늘의 새로운 시민들로 재조성하고, 이들을 통해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을 이 부패한 땅에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에게 의사이신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강건하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 때문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은 적으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의 왕은 사람들을 양으로 여기셨을 뿐 아니라 또한 수확할 곡식으로 여기셨다. 양은 목양이 필요했고, 곡식은 수확이 필요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 하늘의 왕을 배척했지만, 백성 중에는 아직도 수확되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은 자신을 양들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수확의 주로도 여기셨다. 그분의 왕국은 자라고 번성할 수 있는 생명에 속한 것들로 세워진다. … 우리는 양 떼이자 수확물이다. 양 떼는 살아 있는 동물로 구성되고, 수확물은 살아 있는 식물로 구성된다. … 이 하늘의 왕의 돌보심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살아 있다.

 우리 모두는 수확의 주님이신 주 예수님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마태복음9장38절에서 주 예수님은 수확의 주님께 수확할 일꾼들을 보내 주시기를 간청하라고 말씀하셨다. 먼저,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성취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다음에 그분의 백성이 그것에 관해 그분께 간청하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들이 그분의 계획에 관해 기도한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권, 메시지 27, 42-43쪽, 메시지 29, 79-80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권, 메시지 27, 29*

**6/12 목요일**

***아침의 누림***

**마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히 9:14** 더욱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요 5:30**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므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막 16:17**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것이고, 새로운 다른 언어들로 말할 것이며,

**갈 5:25**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겔 36:27** 내가 너희 안에 나의 영을 넣어 주어 너희가 내 율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들을 지켜 준행할 것이다.

**롬 8:4-5**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5**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빌 1: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

 신성한 삼일성 안에는 많은 신성한 탁월함과 신성한 미덕과 신성한 속성이 있다. 그 예로 하나와 겸손과 아름다움과 조화 등을 들 수 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주님은 “그러나 내(아들)가 하나님(아버지를 포함한 삼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삼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 주 예수님은 홀로 이 귀신들을 쫓아내실 수 없었는가? … 그 당시에 그분은 거만하고 이기적이며 개인주의적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계셨다. 그들은 다른 어떤 이들과도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 가운데는 겸손이 없었으며, 그들은 자기 추구와 이기주의로 충만했다. 이제 이런 그들에게 유죄판결 받고 그들 앞에 서 계시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 자신은 무언가를 하실 때 다른 방식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 그분은 개인주의적이지 않으셨다. … 그분은 무언가를 하실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셨다. 그분은 결코 어떤 일도 자신에 의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아름답지 않은가? 이것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 있는 탁월함을 보여 준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5장, 65-66쪽)

1. ***오늘의 읽을 말씀***

 이것은 확실히 우리의 동역에 대한 좋은 본이다. 주님께서 산출하신 몸은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지체들은 그분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고 계셨다. 그분은 결코 어떤 일도 자신에 의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다. …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과 동일하게 처신해야 한다. 그분께서 처신하신 방식은 어떤 일도 자신에 의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으신 것이었다.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충분히 건축되지 않은 것은 합당한 동역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몸의 모든 지체들과 동역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하고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취해야 한다. …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익과 권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러한 아름다움이 우리가 복사해야 할 참된 탁월함이고 참되고도 신성한 속성이며 탁월한 미덕이다.

 주님은 그분 자신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보다 그분은 다른 분에 의해 그리고 다른 분을 위하여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영은 매우 겸손했고 사심이 전혀 없었다. 그분은 어떤 일도 자신에 의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는 어떤 자아나 이기심의 요소가 없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히브리서9장 14절은 그분께서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자신을 드리셨다고 말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왜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실 때 자신에 의해서 하지 않으셨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 그분은 자격이 있으셨고 그분께서 하고자 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통로이자 수단이신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자신을 드리셨다.

 우리는 아들의 겸손하심과 사심 없으심 … 그리고 삼일성 안에 있는 조화를 볼 수 있다. 아들은 …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시고 다른 한 분을 신뢰하셨다. 아들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 분에게서 비롯된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분은 전혀 자신에 의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나 자신을 향해서 존재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이신 분께서 그분의 몸을 위해 세우신 좋은 본이며, 우리 모두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다. …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자신이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통로가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를 통해 일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땅히 다른 누군가가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 존재에서 나온 그 유익을 얻는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5장, 66-67, 69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5장*

**6/13 금요일**

***아침의 누림***

1. **마 24:14**
**14**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입니다.
2. **계 6:2** 내가 보니, 흰색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이는 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복하며 나아갔고 또 정복하려고 나아갔습니다.
3. **딤후 4:2**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매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써, 가책받게 하고 책망하고 권유하십시오.
4. **고전 9:16**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습니다.
5. **행 28:31**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6. **엡 3:8-11**
**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10**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1**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

 은혜의 복음(행 20:24)을 포함하는 왕국 복음(마 24:14)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이끌 뿐 아니라, 천국(계 1:9) 안으로 이끈다. 은혜의 복음은 죄들을 용서함과 하나님의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고, 왕국 복음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주님의 권위를 강조한다. 이 왕국 복음은 이 시대의 끝이 오기 전에 온 땅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 이 증거는 이 시대의 끝, 곧 대환난의 때가 되기 전에 온 땅에 퍼져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이 시대의 끝, 곧 삼 년 반의 대환난 때까지의 유대인들에 관한 실제 역사를 본다. 대환난이 오기 전에 이 절들에서 말한 모든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 마지막 항목은 왕국 복음의 전파가 될 것이다. 나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이 이 복음을 온 세상에 가져갈 부담을 지게 되리라고 믿는다. 은혜의 복음은 이미 모든 대륙에 전파되었지만, 왕국 복음은 그렇지 않다. … 더 높은 이 복음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 각 대륙에 전해질 것이다. 이 시대가 종결될 때의 가장 뚜렷한 징조인 왕국 복음의 전파는 대환난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가 종결될 때의 가장 중요한 징조는 온 세상에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권, 메시지 61, 181-182쪽)

1.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장 2절까지에 있는 일곱 봉인 중 첫째 봉인은 흰색 말과 그 기수이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상징한다(6:1-2). 요한계시록 6장 2절은 “내가 보니, 흰색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이는 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복하며 나아갔고 또 정복하려고 나아갔습니다.”라고 말한다.

 화살이 있는 활은 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화살이 없고 활만 있다. 이것은 화살이 이미 활시위를 떠나 원수를 파멸시켰다는 것을 가리키고, 또 화평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싸움이 끝났고 승리가 쟁취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면류관은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관을 쓰게 되었음을 상징한다(고후 4:4). 오늘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 면류관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느껴야 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흰색 말 위에 타는 기수들이 된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정복하며 나아갔고’는 복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면서 모든 반대와 공격을 정복해 온 것을 상징한다. … 모든 세대에 걸쳐 복음은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전진해 오고 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여 죄인들이 구원받게 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비록 우리는 이것이 성경적인 것임을 인정하지만, 지금 아무 열매도 맺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우리가 흰색 말 위에 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중 대부분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님의 권익을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떼어 놓을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즐거움과 오락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즐거움과 오락으로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에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우리는 복음이 확산되도록 반드시 흰색 말을 타야 한다. (네 가지 ‘일곱’에 대한 성경의 예언, 2장, 31-32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권, 메시지 61; 네 가지 ‘일곱’에 대한 성경의 예언, 2장*

**6/14 토요일**

***아침의 누림***

1. **마 28:19-20**
**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20**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2. **롬 6:3-4**
**3**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갈 3: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4. **고전 12: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5. **엡 4:15-16**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 땅 위에서 그분의 왕국,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방인들을 왕국 백성으로 삼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족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그분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은 왕국의 문제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은 민족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다. 침례는 회개한 사람들이 그들의 옛 생명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발아됨으로써, 옛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 안으로 들어가 왕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권, 메시지 72, 313쪽)

1. ***오늘의 읽을 말씀***

 침례자 요한의 천거하는 사역은 다만 물로 주는 예비 단계의 침례로 시작되었다. 이제 하늘에 속한 왕은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 제자가 된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침례를 명령하신 지 얼마 안 되어 성령 안에서 제자들과 온 교회에게 침례를 주셨는데 (고전 12:13), 오순절 날 (행 1:5, 2:4) 에는 유대인들에게, 고넬료의 집 (행 11:15-17) 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주셨다. 그 후 이것에 근거하여 제자들은 새로 주님께 돌이킨 사람들(행 2:38)을 물속으로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롬 6:3-4),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갈 3:27), 삼일 하나님 안으로(마 28:19),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고전 12:13) 침례를 주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를 상징하는 물은 침례 받는 사람의 옛 역사를 끝내는 무덤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고(골 2:9) 삼일 하나님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죽음안으로,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삼일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단지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는 그들의 옛 생명을 끝내고, 긍정적인 것을 이루는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들을 새 생명, 곧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발아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침례는 천국을 위해,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에서 나와 몸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도록 침례 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권, 메시지 72, 313-314쪽)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본에 따라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여 신성한 생명을 삶으로써, 타고난 사람인 데서 하나님-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고 있다(마 28:19). … 내가 젊은이들이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도록 돕는 동안, 나 역시 날마다 나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여 신성한 생명을 살도록 여러 방면에서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타고난 생명, 곧 그분 자신을 부인하셨다. 주님은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이 그분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다(요 14:24). 그 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요 5:19, 30). 그분은 모든 일을 하실 때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에 의해 하셨다. 그분은 보내신 분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분이셨다. 주님은 그분 스스로 살지 않으셨다. 반대로 주님은 그분을 보내신 분 곧 아버지를 사셨다 (요 6:57상).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사람의 본이다.

 큰 목자와 보혜사의 신성하고 비밀한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빛 비추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양하셔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우리를 통해 완결되도록 하시는 것이다. … 우리는 마땅히 이 신성한 진리의 항목들을 가르쳐야 한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권, 활력 그룹, 4장, 117-118쪽, 6장, 142-143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권, 활력 그룹, 2, 4, 6장;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6-47;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4권, 하나님-사람의 생활, 13장*

1.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권, 활력 그룹, 4 장*

**6/15 주일**

***아침의 누림***

1. **딤후 3:14-17**
**14** 그러나 그대는 배운 것과 확신하고 있는 것 안에 머무십시오. 왜냐하면 그대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있으며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그대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17**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되게 합니다.
2. **딤후 4:1-8**
**1** 겨울이 되기 전에 올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2**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매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써, 가책받게 하고 책망하고 권유하십시오.
**3** 왜냐하면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건강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서, 가려운 귀를 긁어 주는 선생들을 많이 두고,
**4** 그들의 귀가 진리에서 돌아서서 꾸며 낸 이야기로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서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파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6** 나는 이제 부어지고 있으며,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